

김대중 대통령 각하!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결국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가시적인 총체적 결과물이 건축일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까? 차체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축은 크게 다음 몇 가지의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문화 예술로서의 건축

건축은 필요과정과 생산과정의 동기나 목적에 상관없이 문화와 예술로서 시대를 대변하며 도시사회를 구성하고 역사에 남겨집니다. 이것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건축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수립 전개되어 나가야 하는가를 말해 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문화로서의 건축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건축유산을 지키고 남겨주려는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물론 이 난국에 첫째로 경제대통령이 되셔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문화대통령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각하처럼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지닌 준비된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삼두마차와 같아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함께 달려야 그 성취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건축의 문화로서의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장려해 주셔서 건축가들에게 문화 창작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건축 환경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의 주역이 건축이 될 수 있다면 유관 예술분야와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더욱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세계적으로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시 행정으로서의 건축

건축의 산업 규모가 국민총생산량의 13%를 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이제 국민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경제 행위의 중요한 기반임과 동시에 도시화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 환경 등의 제반 문제들이 건축 행정의 중요한 코드가 될 것이고 도시정책과 건축정책들의 효율적인 집행만이 민간 주도형의 건축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으로서의 건축에 공공재산으로서의 사회성을 인식시키는 슬기로운 방법을 정비하여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를 건축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바탕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 산업으로서의 건축

건축도 Software와 Hardware로 나눌 수 있으며 건축은 수많은 기술과 자재들이 모여 현장 생산을 통해 완성되는 종합산업입니다. 건축의 질을 얘기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이 Software인 설계이기는 하지만 설계만 가지고 건축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품질과 건설기술 수준들이 집대성되어야 비로소 건축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설에 있어서 자재 산업과 건설기술 산업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 집약적인 체제로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Software인 설계까지 경쟁력을 높인다면 대기업에 예속시키고 건설의 휘하에 두겠다는 발상은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얘기입니다. Software와 Hardware는 상호 보완 관계로서 일체인 듯 하나 견제균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한 몸이면서도 저마다 지켜야 할 역할과 분야가 있습니다. Software는 나름대로의 동기와 명여가 주어져야 발전될 수 있는 분야이고 Hardware는 고도로 기술 집약적인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한 가치로 같이 취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 각하!

다 잘 아시는 얘기를 증언부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문제는 이렇듯 여러 상반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졸속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과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문화로서의 건축을 만들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욕을 주셔야 하고 건설산업은 활성화시켜야 하며 도시행정은 맑고 발전적이어야 합니다. 10년전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200만호 건설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피드백해 보신다면 정말 건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동시에 또 각하같은 준비된 지도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경제불황, 건축불황이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모두 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하의 경륜이 건축계에도 미쳐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발휘되기를 기원하면서 졸필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각하

80년대 각하의 '옥중서신' 을 읽으며 각하의 애국심과 국민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애정에 눈물로서 감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각하께서 각하로 호칭되어 마땅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도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격무에도 건강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철들고 처음 대통령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